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 가구 특성 연구

김 성 숙*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구주 가계유형은 고령 여부 및 일인가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고령-일인가계, 고령-비일인가계, 비고령-일인가계, 비고령-비일인가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0차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SPSS(v.20)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가구주가계 전체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건강상태, 19세 미만 자녀유무, 혼인상태, 사적이전소득유무, 자가보유로 나타났다. 가계유형별로는 고령-일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취업여부였으며, 고령-비일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 결정요인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비고령-일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 결정요인은 건강상태와 자가보유였으며 비고령-비일인가구의 빈곤여부 결정요인은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대처방안이 상이해야 함을 시사하며 여성가구주가계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 취업지원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여성가구주, 빈곤, 인적자본요인, 가족특성요인, 소득/자산구조요인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정보학과 부교수. kssch@kmu.ac.kr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2012) pp. 71-103

© 201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문제제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통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로 규정할 때 현대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 중산층 비중¹⁾은 2005년 57.5%에서 2008년 49.9%로 7.6%가 감소하고 이들 중 2.7%만이 고소득계층으로 상향 이동한 반면 저소득계층의 이동은 4.9%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절대빈곤계층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2002년도 5.2%, 2003년도 11.5%에서 2009년도 11.5%로, 반면 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은 2002년도 9.3%에서 2003년도 14.6%, 그리고 2009년도 15.1%로²⁾ 증가하였다.

빈곤계층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그 중심에 여성이 있다. 빈곤의 여성화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빈곤 현상에서 중심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성빈곤계층을 주목하는 이유는 가족의 해체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자녀양육 책임 증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로 인한 노동 지위의 남녀격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는 2010년 말 현재 4,497가구로 전체 가구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이혼의 증가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011년 말 현재 취업여성의 37.6%는 임시직

1) 2009년도 한국 중산층의 규모는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66.7%, 삼성경제연구원(2010)는 55.5%, 현대경제연구원(2009)의 경우 49.9%로 추정하고 있음.

2) 절대적 빈곤율: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11년도 4인가구의 경우 매월 1,439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가능.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 22.9%보다 훨씬 높고, 여성 상용직근로자는 37.1%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48.9%로 매우 높아 여성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가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논문(홍백의·김혜연, 2007)에서 개인 여성과 개인 남성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전체와 일부 연령층에 국한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빈곤하다는 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밝히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빈곤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혜경, 1998; 김영란, 2006; 유정원, 2000; 박영란, 2004; 여지영, 2003; 박재규, 2003; 석재은, 2004; 김혜영 외, 2005; 김수정, 2007). 기존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해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성별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기존연구들을 보면 남녀 가구주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자본요인, 가족구조요인, 노동시장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여성가구주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가구주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이하며 여성가구주의 빈곤지위는 교육수준, 가구원수와 어린자녀유무, 노동형태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연령이나 가족특성, 노동참가활동 등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여성 가구주 가계의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파악하고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가계유형에 따른 빈곤상태의 차이 및 영향요인의 차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유형의 세분화를 시도하였는데 최근 일인가구의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여 2가지 요인, 즉 일인가구여부, 고령가구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일인가계, 고령-비일인가계, 비고령-일인가계, 비고령-비일인가계로 4가지 여성가구주 가계

유형별로 빈곤여부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정책 면에서 여성가구주 가계의 빈곤탈피를 위한 방안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의 빈곤상태가 남성에 비해 어느정도 열악한 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분석대상에서는 주로 여성가구주가계와 남성가구주가계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가구주의 지위보다는 가구원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구원으로서 여성은 시장소득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가계전체소득을 향유한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인 여성과 개인 남성을 비교할 때 남녀의 개인임금수준을 비교한 다든지 또는 가계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명확한 성별 비교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여성가구주가계로 선정하였다. 여성가구주란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으로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미혼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을 가리키며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남성 배우자가 없는 가계, 배우자가 부양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유배우자가계, 그리고 미혼가계에서 여성이 세대주인 가계가 이에 포함되며, 여성가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국외에서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는 피어스(Pearce, 1976)가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소개한 이후 빈곤문제에서 젠더가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

게 되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 여성빈곤에 주목한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인 남성이 없을 경우 사회보험혜택 등에서 제한되는 등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구조요인은 이혼율 및 미혼모 증가, 여성의 자녀 양육책임 증가 등이며 노동시장요인으로는 노동시장분절요인, 성차별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Peterson, 1987). 그리고 가족구조요인에서 여성의 결혼상태, 아동양육여부 및 이 전소득유무 등이 여성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Maclanhan et al, 1989). 노동시장요인에서는 미국사회의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여성의 고용은 증대시킨 반면 서비스 특유의 저임금, 비정규직 특성은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1984; Northrop, 1990; 강병창·박병현, 2010: 4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이해경(1998)의 연구를 필두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해경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이 빈곤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가운데 80%가 여성임을 밝힘으로써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 뒤 다수의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실증하는데 주력하면서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유정원, 2000; 이해경 외, 2002; 여지영, 2003; 석재은, 2004). 남녀가구주가구의 빈곤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동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석재은(2004)의 연구에서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16.9%인데 비해 남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7.9%로 2.6배 차이가 났으며, 김수정(2007)에 따르면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1%인데 비해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36%나 되었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별빈곤율을 비교한 연구(홍백의·김혜연, 2007)에서 여성빈곤율은 14.72%이고 남성빈곤율은

11.67%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인적 자본변수, 가족특성변수, 노동시장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실증하였다. 박재규(2003)는 여성가구주의 취업과 근로소득여부가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실증하였다. 윤희식 외(2005)는 절대빈곤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 경우나 취업한 경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돌봄대상이 있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에서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또 소득이전변수들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2006)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노동가능성의 약화, 그리고 가족의 보살핌 책임에 의한 고용접근 제한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며 이는 여성의 빈곤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사회통계를 통해 서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정(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계와 남성가구주 가계의 빈곤 결정요인이 각각 달랐다. 송다영과 김유나(2008)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별, 사별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가장가족의 빈곤이 일반가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별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주거불안정과 자녀양육 문제를 부각시켰다.

최근 빈곤의 여성화 관련 연구들은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홍백의·김혜연(2007)은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단면 분석에서는 가구원수나 가구 내 취업자수와 같은 가구형태 관련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분석을 이용하여 여성가구주의 빈곤탈피과정을 분석한 유태균·박효진

(2009) 연구에 따르면 성별과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피가 어려우며 남성가구주 가계의 경우 배우자유무, 근로여부, 근로가구원수, 노인가구원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가구주가계의 경우 근로가구원수, 노인가구원수만이 빈곤탈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호(2008)에 따르면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에 연령과 6세 미만 아동은 부적(-) 영향을, 건강상태와 가구원수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희(2010)도 임금근로여성 가구주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바, 가구주의 연령, 학력, 돌봄노동부담, 사업장의 가족친화정책이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창·박병현(2010)의 연구는 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 1,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 여성가구주를 연금배제세대와 연금수급세대, 경제활동세대로 구분하여 빈곤율과 저소득을 비교한 결과, 연금배제세대 빈곤율은 전체가구의 두 배나 되고 경제활동세대 여성가구주의 소득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원(2011)은 생애사접근법으로 빈곤과정 연구를 통해 여성 빈곤이 남성 생계부양자를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해 벗어나면서 발생한다는 통념과는 다른 예외적인 사례에 초점을 둔다. 그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은 '정상적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편의 폭력을 견디고 자녀를 보살피기 위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오히려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한 빈곤에 취약함을 피력한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가구주의 개인 및 가족 특성과 노동시장의 조건에 따라 빈곤화 정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빈곤의 여성화 주제에 있어서 여성가구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고령 여성가구주와 비교령 여성가구주의 비교연구는 가장 흔하게 사

회복지수혜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므로 노동참가와 소득구조에 대한 분석과 각 집단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더 정교한 복지대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인 여성가구주와 비일인 여성가구주의 빈곤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는 일인가구 특성에 대한 세밀한 규명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비일인 여성가구주가의 경우 가족 돌봄 노동의 부담, 가족원의 소득획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연령과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 특성요인과 6세미만 아동의 여부와 가구원수 등 가족구조요인, 그리고 노동시장의 고용지위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요인은 여성가구주가의 소득구조나 자산보유 및 규모 등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노동참여에 관한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수준과 다른 가족원의 소득과 자산이므로 여성가구주가계에서 다른 가족원을 포함한 가계소득과 자산구조가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의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여성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가구원수와 고령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가족구성에서 일인가구 증가 현상이 뚜렷하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서 고령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인가구여부와 고령여부를

적용하면 여성가구주 가계유형을 일인-비고령가계, 일인-고령가계, 비일인-비고령가계, 비일인-고령가계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여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가설 2-1. 여성가구주의 인적자본요인(학력, 거주 지역, 건강상태)은 빈곤여부에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여성가구주의 노동참가요인(취업여부, 종사상지위)은 빈곤여부에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여성가구주의 가족특성요인(19세 미만 자녀, 혼인상태)은 빈곤여부에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4. 여성가구주의 가계소득/자산구조요인(사회보험소득, 사회적전소득, 자산소득, 자가보유, 부채유무)은 빈곤에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3〉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에 조사 실시한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이하 KLIP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KLIPS는 노동경력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실시되어 있어 여성가구주 가계의 경제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참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LIPS 조사는 매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가구용 조사’와 ‘가구원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용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에 해당하는 가구원 조사내용을 합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응답은 여성가구주가 응답한 경우만 추출하였으므로 빈곤가계 및 비빈곤가계 모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전체 5,000가구의 패널대상 가운데 여성가구주는 1,018가구로 전체의 22.4%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실응답 및 무응답이 많아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은 718가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성가구주는 이혼, 사별, 별거 혹은 미혼으로서 자신이 가구주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나 실제로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배우여성으로 정의하였다. KLIPS에서도 가구주의 역할은 실제로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는 자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여성가구주가구의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가 144가구로 최종 분석대상가구 가운데 20.1%나 되었다.

종속변수인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하였다. OECD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는 가구로 정의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계소득금액은 가구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실제적으로 누리는 소득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였다. OECD 기준 가구균등화소득 산정방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0차 노동패널자료에서 연간가계소득을 계산하고 OECD 가구균등화소득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연간가구균등화소득을 산출하였다. 가구의 빈곤여부는 2007년 소득분배지표(통계청 KOSIS 자료,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가구균등화월평균가처분소득인 1,391,943원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50%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빈곤한 가구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본 분석대상 사례들 718가구 가운데 294가구(40.9%)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방법은 SPSS Win V.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

원배치분산분석, 그리고 이분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적자본요인으로 학력, 거주 지역, 건강상태를, 노동활동요인으로 취업여부, 직업유형, 종사상지위를, 가족구조요인으로 19세 미만 자녀유무와 혼인상태를, 소득/자산구조요인으로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 자가보유, 부채보유를 선정하였다. 소득/자산구조요인에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활동요인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제거하였으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원이 있는지 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택보유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거주주택의 보유여부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 가운데 부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넘는 등 부채문제가 가계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가구주가계에서도 부채보유가 빈곤화를 심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인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새롭게 채택된 소득/자산구조요인을 다루었던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다소 실험적인 분석시도이다. 구체적인 변수들에 대한 정의 및 측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척도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척도
빈곤	전체가구의 중위소득(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수준의 50%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빈곤=1, 빈곤하지 않음=0
연간총가처분소득	지난 1년간 세금을 제외한 연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측정하였음.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조사 당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질문하였으므로 연간총가처분소득을 의미함.
학력	과거 학교를 다닌 경험 수준을 의미함. 무학=0, 미취학=0, 초등=6, 중등=9, 고등=12, 전문대=14, 4년제대학=16, 대학원이상=18로 교육년수로 전환함.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척도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함. 서울특별시=1, 광역시=2, 시군부=3. 회귀분석시에는 더미변수화 하여 서울특별시(기준변수=시군부), 광역시(기준변수=시군부)로 변수를 생성하였음.
건강상태	현재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의 정도. 5점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것을 의미함.
취업여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취업한 것을 의미함. 취업=1, 비취업=0
직업유형	취업한 경우 현재 및 최종 일자리의 직업 유형.
종사상의 지위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현재 또는 최종 일자리의 지속성을 의미함. 상용직=1, 임시직=2, 일용직=3. 회귀분석시에는 더미변수화하여 상용직(기준변수=임시직/일용직)으로 전환하였음.
19세 미만 자녀유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
혼인상태	현재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 1=미혼, 2=유배우자, 3=별거 및 이혼, 4=사별
사회보험소득	공적인 이전소득인 사회보험수급 여부. 수급=1, 비수급=0
사적이전소득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 얻는 사적 이전소득 수급 유무. 수급=1, 비수급=0
자산소득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보유로부터 얻는 소득. 자산소득보유=1, 자산소득 미보유=0
자가보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자가 및 임차 여부. 자가=1, 임차=0
부채유무	금융권 및 사금융 부채보유액, 전세금/보증금 받은 금액 보유 여부. 부채보유=1, 부채미보유=0

여성가구주가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4가지 가계유형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가계유형별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일인-비고령가계는 184가구(25.7%), 일인-고령가계 165가구(23.0%), 비일인-비고령가계는 292가구(40.6%), 비일인-고령가계는 77가계(10.6%)로 나타났다. 즉 비일인-비고령가계가 가장 많았

으며 일인-비고령가계, 일인-고령가계, 비일인-고령가계 순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여성가구주가계 가운데 고령가구 비중은 33.6%로 전체 고령화율인 15.6%의 2배가 넘었으며 일인가구 비중은 평균인 48.7%로 전체 일인가구 비중인 25.6에 두 배에 달한다.

<표 2> 여성가구주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항목	일인-비고령가계	일인-고령가계	비일인-비고령가계	비일인-고령가계	전체	X2 /F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간 가처분 소득	평균	1386.8	621.5	3251.9	1944.4	2027.6	F=77.9***
	표준 편차	1274.0	563.6	2654.2	1659.4	2177.8	
연령	평균	40.47	74.18	43.78	72.81	53.03	F=473.3***
	표준 편차	13.69	6.09	11.11	6.33	18.19	
학력	무학	9(4.9)	83(50.6)	7(2.4)	30(39.0)	129(18.0)	318.9***
	초졸	36(19.7)	54(32.9)	78(16.5)	34(44.2)	172(24.1)	
	중고졸	67(36.6)	25(15.2)	132(45.4)	113(16.9)	237(33.1)	
	대학 이상	71(38.8)	2(1.2)	104(35.7)	0(0.0)	177(24.8)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혼인 상태	미혼	93(50.5)	1(0.6)	14(4.8)	0(0.0)	108(15.0)	557.9***
	유배우	9(4.9)	0(0.0)	133(45.5)	2(2.6)	144(20.1)	
	이혼/ 별거	50(27.2)	16(9.7)	67(22.9)	3(3.9)	136(18.9)	
	사별	32(17.4)	148(89.7)	78(26.7)	72(93.5)	330(46.0)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거주 지역	서울시	49(26.6)	32(19.4)	92(3.5)	20(26.0)	193(26.9)	15.8*
	광역시	54(29.9)	40(24.2)	69(23.6)	28(36.4)	192(26.7)	
	시군부	80(43.5)	93(56.4)	131(44.9)	29(37.7)	333(36.4)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변수	항목	일인-비고 평가계	일인-고령 가계	비일인-비 고평가계	비일인- 고평가계	전체	X2 /F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취업 여부	취업	132(71.7)	31(18.8)	167(57.2)	16(20.8)	346(48.2)	130.6***
	비취업	52(28.3)	134(81.2)	125(42.8)	61(79.2)	372(51.8)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생활 보호 대상자 여부	예	1(0.5)	33(20.0)	10(3.4)	18(23.4)	62(8.6)	73.4***
	아니오	182(99.5)	132(80.0)	282(96.6)	59(76.6)	655(91.4)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자가 유무	있음	43(23.4)	79(47.9)	134(45.9)	48(62.3)	304(43.3)	43.3***
	없음	141(76.6)	86(52.1)	158(54.1)	29(37.7)	414(57.7)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부채 유무	있음	51(27.7)	23(13.9)	159(54.5)	30(39.0)	263(36.6)	83.0***
	없음	133(72.3)	142(86.1)	133(45.5)	47(61.0)	455(63.4)	
	전체	184(100.0)	165(100.0)	292(100.0)	77(100.0)	718(100.0)	

주) 각 변수의 합계가 다른 것은 결측치 때문임.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연간가처분가계소득, 학력, 거주 지역, 취업여부, 생활보호대상자, 자가여부, 부채유무를 살펴본 결과, 4가지 가계유형에 따라 이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인-비고평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정리하면 40%가 대학 이상 학력수준, 시군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미혼이 50%이며, 평균 40.47세로 2/3가 취업 중이고 평균연간가처분가계소득수준은 1천386만8천원이고 99.5%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27.7%다. 일인-고령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정리하면 과반수가 무학의 학력으로 시군부에 거주하며 평균 74.18세로 사별인 경우가 89.7%에 달하고 18.8%만이 취업 중이고 평균연간가처분가

계소득수준은 621만5천원이고 80%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13.9%로 가장 낮다. 비일인-비고령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정리하면 45%가 중·고졸 학력수준으로 시군부에 거주하며 평균 43.78세로 유배우자인 경우가 45.5%이며 57.2%가 취업 중이고 평균연간가처분가계소득수준은 3천251만9천원이고 96.6%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54.5%로 가장 높다. 비일인-고령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정리하면 44%가 초졸의 학력수준, 주로 광역시와 시군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평균 72.81세로 사별의 경우가 93.5%이고 이 가운데 20.8%가 취업 중이고 평균연간가처분가계소득수준은 1천944만원이고 23.4%가 생활보호대상자이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39.0%다.

4. 연구결과

1)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 상태

빈곤여부는 여성가구주 가계유형에 따라 유의수준 1%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 여성가구주 가계 전체의 빈곤율은 41.1% 인데, 일인-비고령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율은 81.2%, 비일인-비고령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율은 19.6%, 비일인-고령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율은 52.6%로 나타나 일인-고령여성가구주 가계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대책에 있어서 일인-고령여성가구주가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고령여성가구주가계가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가장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 여성가구주가계 유형별 빈곤여부

변수	항목	일인-비고 령가계	일인-고령 가계	비일인-비고 령 가계	비일인-고령 가계	전체	X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곤 여부	예	63(34.2)	134(81.2)	57(19.6)	40(52.6)	294(41.1)	173.1***
	아니오	121(65.8)	31(18.8)	234(80.4)	36(47.4)	422(58.9)	
	전체	184(100.0)	165(100.0)	291(100.0)	76(100.0)	716(100.0)	

***p<.001

2)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여성가구주의 인적자본요인과 빈곤여부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인적자본요인들 즉 학력, 거주지역,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세 변수들 모두에 따라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학력이 낮은 집단이 빈곤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리고 광역시나 시군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또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가구주가계가 빈곤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표 4> 여성가구주가계의 인적자본요인과 빈곤여부

변수	항목	빈곤가구	비빈곤 가구	전체	X2, F검정
		빈도(%)	빈도(%)	빈도	
학력	무학	94(32.0)	35(8.4)	129(18.1)	130.9***
	중졸	96(32.7)	74(17.7)	170(23.8)	
	고졸	80(27.2)	157(37.5)	237(33.2)	
	대학이상	24(8.2)	153(36.5)	177(24.8)	

변수	항목	빈곤가구	비빈곤 가구	전체	X ² , F검정
		빈도(%)	빈도(%)	빈도	
	전체	294(100.0)	419(100.0)	713(100.0)	
거주 지역	서울시	64(21.8)	129(30.6)	193(27.0)	6.8*
	광역시	83(28.2)	109(25.8)	192(26.8)	
	시군부	147(50.0)	184(43.6)	331(46.2)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건강 상태	아주 건강하다	1(0.3)	16(3.8)	17(2.4)	117.1***
	건강한 편이다	50(17.0)	190(45.0)	240(33.5)	
	보통이다	88(29.9)	142(33.6)	230(32.1)	
	건강하지 않는 편이다	127(43.2)	60(14.2)	187(26.1)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8(9.5)	14(3.3)	42(5.9)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주) 각 변수의 합계가 다른 것은 결측치 때문임.

*p<.05, **p<.01, ***p<.001

(2) 여성가구주의 노동참가요인과 빈곤여부

노동참가요인인 취업여부, 직업유형, 종사상지위에 따라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여성가구주가 취업하지 못한 가계가 취업한 가계보다 빈곤여부 비중이 더 높았다. 여성가구주의 직업유형이 무직이거나 비임금인 경우가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가계보다 빈곤여부 비중이 더 높았다. 여성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임시직/일시직/무직인 경우가 상용직일 경우보다 빈곤여부의 비중이 더 높았다.

<표 5> 여성가구주가계의 노동참가요인과 빈곤여부

변수	항목	빈곤여부	비빈곤여부	전체	X ² , F검정
		빈도(%)	빈도(%)	빈도(%)	
취업 여부	취업	197(67.0)	175(41.5)	372(52.0)	45.7***
	비취업	97(33.0)	247(58.5)	344(48.0)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직업 유형	근로자	65(22.1)	184(43.6)	249(34.8)	45.7***
	자영업자	31(10.5)	60(14.2)	91(12.7)	
	무직/비임금	198(67.3)	178(42.2)	376(52.5)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33(11.2)	147(34.8)	180(25.1)	51.3***
	임시직/일용직/무직	261(88.8)	275(65.2)	536(74.6)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주) 각 변수의 합계가 다른 것은 결측치 때문임.

*p<.05, **p<.01, ***p<.001

(3) 여성가구주의 가족특성요인과 빈곤

가족특성요인인 19세 미만 자녀유무에 따라 빈곤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계의 방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지지되지 못했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빈곤여부의 비중이 더 낮았다. 19세 미만 자녀유무와 여성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19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고령자일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빈곤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여성가구주에게

돌봄의 대상으로 판단되어 자녀의 존재가 여성가구주의 노동참가를 제약하고 그 결과 가계가 빈곤여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린 자녀가 아닌 청소년기 자녀의 존재는 오히려 빈곤여부를 탈피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여성가구주가계의 가족특성과 빈곤여부

변수	항목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X2
		빈도(%)	빈도(%)	빈도	
19세 미만 자녀	있음	31(10,5)	125(29,6)	156(21,8)	37,0***
	없음	263(89,5)	297(70,4)	560(78,2)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혼인상태	미혼	83(19,7)	25(8,5)	108(15,1)	108,396***
	유배우자	127(30,1)	17(5,8)	144(20,1)	
	이혼/별거	77(18,2)	59(20,1)	136(19,0)	
	사별	135(32,0)	193(65,6)	328(45,8)	
	전체	422(100,0)	294(100,0)	716(100,0)	

***p<.001

(4) 여성가구주의 소득/자산구조요인과 빈곤

소득/자산구조요인들은 부분적으로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방향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우선 사회보험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여성가구주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빈곤여부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사회보험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획득이 빈곤탈피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사회보험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여성가구주가계의 경우 여전히 빈곤여부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원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서 빈곤을 탈피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사회보험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여성가구주인 경우 자력으로 소득을 획득할 능력이 없거나 지극히 부족한 고령가계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은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이외의 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집단이 다수 포함될 경우 이전소득을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빈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능력이 없으며 빈곤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자산소득이 있는 여성가구주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빈곤여부의 비중이 더 낮았다. 자가보유는 빈곤여부와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구주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빈곤여부 비중이 더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산소득이 빈곤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부채가 있는 가계가 빈곤여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가 자산을 보유하는 비율이 높아 부채가계가 빈곤여부를 의미하지 않는 현상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부채가 아닌 경우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동시에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산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소득이 아닌 획득된 화폐소득을 기초로 빈곤여부를 판정할 경우 빈곤여부의 비중이 낮을 수 있다.

<표 7> 여성가구주가계의 소득/자산구조와 빈곤여부와와의 관련성

변수	항목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X2
		빈도(%)	빈도(%)	빈도	
사회보험소득	있음	43(14.7)	37(8.8)	80(11.2)	6.1*
	없음	250(85.3)	285(91.2)	635(88.8)	
	전체	293(100.0)	422(100.0)	715(100.0)	
사적이전소득	있음	236(80.3)	202(47.9)	438(61.2)	76.6***
	없음	58(19.7)	220(52.1)	278(38.8)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자산소득	있음	19(6.5)	51(12.1)	70(9.8)	6.1*
	없음	274(93.5)	371(87.9)	645(90.2)	
	전체	293(100.0)	422(100.0)	715(100.0)	
자가보유	있음	123(41.8)	179(42.4)	302(42.2)	.02
	없음	171(58.2)	243(57.6)	414(57.8)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부채유무	있음	77(26.2)	185(43.8)	262(36.6)	23.3***
	없음	217(63.4)	237(56.2)	454(63.4)	
	전체	294(100.0)	422(100.0)	716(100.0)	

*p<.05, ***p<.001

3)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빈곤여부로 이분형 명목변수이므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설정에서 제시하였듯이 독립 변수는 학력(교육년수), 거주지역, 건강,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19세 미만 자녀유무,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 자가보유, 부채유무이다. 학력은 회귀분석에서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등간척도화하였다. 직업유형(근로자,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을 고려하였으나 취업여부와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최종적으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그 외, 종사상지위는 상용직과 그 외로 더미변수화하여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건강만이 5점 척도이며 그 외 다른 변수들은 모두 명목척도(1과 0)이다. 취업여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4가지 여성가구주가계유형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개의 회귀모형계수의 전체 검정결과 카이제곱 검증값이 일인-고령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가계유형과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의하였다. 그런데 모형의 적합도 검정방법인 호스머(Hosmer)와 레미쇼(Lemeshow) 검정 결과에서는 4가지 여성가구주 가계유형과 전체 조사대상자 모형 등 모든 모형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일인-비고령가계는 81.4%, 일인-고령가계 83.5%, 비일인-비고령가계 81.8%, 비일인-고령가계 73.7%, 전체 가계는 78.2%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가구주 가계의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학력(교육년수), 건강상태, 19세 미만 자녀,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가구주의 교육년수가 짧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없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가구주의 교육년수가 1년 짧아지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은 .915배 높아지며 건강상태가 1점 나빠지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1.706배 높아진다. 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527배 낮아지며 사별인 경우는 미혼/유배우자 인 경우에 비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1.864배나 높았다.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은 .442배 낮아지고 자가를 보유할 경우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632배 낮아진다.

일인-비고령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1점 나빠

지만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1.91배 증가하며 여성가구주가 취업을 하게 되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약 .187배 감소한다. 일인-고령여성가구가계의 경우 모형 적합도 검정에서 카이제곱검정이 유의하지 않았다. 비일인-비고령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상태와 자가보유로 나타났다. 즉 비일인-비고령여성가구의 건강상태가 1점 나빠지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약 2.182배나 높았으며 자가보유를 할 경우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은 .325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가 여성가구주 가계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비일인-비고령 가계가 유일하다. 이는 자녀와 같은 가족원이 있는 경제활동세대의 경우 자산의 보유가 빈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가 유일의 의미가 있다. 비일인-고령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강상태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1점 나빠질 경우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은 2.671배나 높았다.

<표 8>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빈곤 여부	일인-비고령 가계		일인-고령 가계		비일인-비 고령 가계		비일인-고령 가계		전체	
	빈곤여부		빈곤여부		빈곤여부		빈곤여부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상수항	2.292	1.142	-1.720	.179	-.004	.673	39.827	1.602	1.378	.685
학력(교육년수)	-.122*	.885	-.002	.998	-.052	.950	.019	1.019	-.089***	.915
거주지역 (서울시=1, 기타=0)	.013	1.013	-.440	.644	-.221	.802	-.773	.461	-.133	.876
건강상태(5점척도)	.647*	1.910	.065	1.07	.780***	2.182	.983**	2.671	.564***	1.706

독립변수	종속변수: 빈곤 여부		일인-비고령 가계		일인-고령 가계		비일인-비 고령 가계		비일인-고령 가계		전체	
	빈곤여부		빈곤여부		빈곤여부		빈곤여부		빈곤여부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취업여부 (있음=1, 없음=0)	-1.676**	.187	.007	1.01	.484	1.622	.471	1.602	-.143	.887		
종사상지위 (상용직=1, 기타=0)	.190	1.210	19.509	-	-.393	.675	-.112	.894	-.398	.671		
19세 미만자녀 (있음=1, 없음=0)	-	-	-	-	-.130	.878	.322	1.380	-.641*	.527		
혼인 상태	사별	.019	1.019	-19.798	.000	-.176	.838	-21.602	.000	.623*	1.864	
	이혼/별거	.062	1.210	-18.582	.000	.722	2.059	-20.353	.000	.280	1.323	
	(기준변수 : 미혼/유배우)	-	-	-	-	-	-	-	-	-	-	
사회보험소득 (있음=1, 없음=0)	-1.047	.330	1.276*	3.581	-1.233	.292	.449	1.567	-.059	.943		
사적이전소득 (있음=1, 없음=0)	-.202	.781	20.566	-	-.332	.718	-22.133	.000	-.822***	.440		
자가보유 (있음=1, 없음=0)	.412	1.510	-.075	.928	-1.124*	.325	.206	1.229	-.459*	.632		
부채유무 (있음=1, 없음=0)	-.598	.550	-.393	.675	.153	1.166	-.922	.398	-.350	1.420		
X ²	63.4075***		9.987		49.756**		22.496*		235.906***			
-2 log우도	170.919		146.166		238.120		82.652		730.837			
Cox 와 Snell R ²	.293		.059		.157		.256		.280			
Nagelkerke R ²	.406		.095		.250		.342		.389			
분류 정확도(%)	80.9		81.7		81.4		72.4		77.2			

* p<.05, ** p<.01, *** p<.001 유의수준에서 Wals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구주 가계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령 및 일인가구여부를 채택하였으며 고령-일인가구, 고령-비일인가구, 비고령-일인가구, 비고령-비일인가구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요인으로 학력, 거주지역과 건강상태를, 가족구조요인으로 19세 이하 자녀유무, 노동참가요인으로 취업여부, 직업유형, 종사상 지위, 소득/자산구조요인으로 사회보험소득유무, 사적이전소득유무, 자산소득유무, 자가보유, 부채유무를 채택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0차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SPSS(v.20)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통계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는 인적자본요인, 노동참가요인, 가족특성요인, 소득/자산구조요인 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가구주가계 전체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건강상태, 19세 미만 자녀유무, 사적이전소득유무, 자가보유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학력과 건강상태 등 인적자본요인이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가계유형별로는 고령-일인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취업여부였으며, 비고령-일인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자가보유였고, 비고령-비일인가계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가계유형별 빈곤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대처방안이 상이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대처에 대한 제언

을 하면 첫째, 여성가구주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학력과 건강상태가 여성가구주 가계 전체와 각 가계유형에서도 빈곤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에 대한 평생교육 및 노동능력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활동세대에 해당하는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주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빈곤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고령자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그들의 빈곤탈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취업이 증가할수록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경우는 일인-비고령가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여부가 남성가구주가계의 빈곤탈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탈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홍백의·김혜연, 2007; 윤성호, 2008; 유태균·박효진, 2009)의 연구 결과에 대체로 부합한다. 최근 늘어나는 일인가구의 추세로 볼 때 여성가구주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일인가계의 빈곤탈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족 내 자녀의 존재가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자녀의 존재가 돌봄노동의 부담을 유발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지위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윤성호, 2008)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한계상 19세 미만 자녀유무를 변수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6세 이하 어린자녀의 유무의 빈곤여부에의 영향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오히려 미성년자 자녀는 부양의 대상이자 또 다른 노동력 또는 소득의 원천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녀의 존재는 돌봄노동이 필요한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돌봄노동 대상이 되는 어린자녀의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 하는 정책과 더불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탈젠더화된 가족정책이 바람직하다(홍세영, 2011).

넷째, 가계의 소득/자산구조는 빈곤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여성가구주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빈곤가구가 될 확률이 .822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아직도 공식적인 복지혜택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보험소득은 일인-고령여성가구주가계에서, 자가보유는 비일인-비고령여성가구주가계에서 빈곤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채보유는 현재 빈곤여부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여성가구주가계의 소득/자산구조, 특히 이전소득과 자가보유가 빈곤여부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탈피에서 가계유형과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건강상태였다. 따라서 여성가구주가계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로 상이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일인-비고령여성가구주가계는 최우선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인-고령여성가구주가계의 경우 사회보험소득의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일인-비고령여성가구주가계는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집단이며 남편이 있는 경우가 45.5%나 되는 집단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가보유가 빈곤가구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 집단들의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현재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으로서 마이크

로크레딧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의 창업 및 자활을 지원한다. 정부인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가장에게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창업대출사업이 진행되어 왔다(신경희, 2009). 이들 사업의 조사대상자는 주로 최저생계비의 120% - 150% 이하의 가구소득 수준을 가진 한부모여성가구주나 여성가장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빈곤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비일인 - 비고령여성가구주가의 빈곤율(19.6%) 보다는 일인 - 비고령여성가구주의 빈곤율(34.2%)이 더 높고 다른 고령자 여성가구주가의 빈곤율은 더욱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대상을 모자가정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전체 여성가구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린 자녀의 유무나 배우자유무 등 관련 독립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점, 그리고 횡단분석만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여부의 결정요인들이 빈곤탈피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다. 후속연구로서 각 가계유형별로 여성가구주의 빈곤탈피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인 계량분석이나 생애사연구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병창 · 박병현(2010), “중·고령 여성가구주의 연령특성별 빈곤 및 저소득에 미치는 영향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4호, 1-29쪽.
-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

- 차”,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7권 1호, 93-133쪽.
-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0집 2호, 189-226쪽.
- 김혜영 · 이은주 · 윤홍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재고-”,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1호, 5-51쪽.
- 박영란(2004), “빈곤의 여성화 - ‘신빈곤’시대의 여성과 탈빈곤 정책의 뉴패러다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47권 2호, 61-95쪽.
- 박재규(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 사회과학』, 제13집, 81-112쪽.
- 배진희(2010), “임근 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4호, 131-151쪽.
- 삼성경제연구소(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결과, Issue Paper. 2010년 8월호.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2호, 167-194쪽.
- 송다영 · 김유나(2008),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22권, 131-159쪽.
- 신경희(2009), “서울시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정원(2000), “한국 여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제4,5,6차 대우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유태균·박효진(2009),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간의 빈곤탈피 영향 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5권 3호, 29-58쪽.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22호, 67-94쪽.

윤홍식·김혜영·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본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1권 3호, 263-288쪽.

이혜경(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UNDP 한국대표부,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이혜경·유태균·이선우 외(2002),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재원(2011), 『(여성의 빈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숨겨진 빈곤』, 서울: 푸른사상.

현대경제연구원(2009),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09-14(통권 396호).

홍백의·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125-146쪽.

홍세영(2011), 『세계여성 복지정책의 비교연구』, 서울: 박문사.

MacLanhan, S., A. Sorensen and D. Watson(1989), “Sex Difference in Poverty, 1950-1980”, *Signs*, 15, pp. 102-122.

Pearce, D.(1976),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pp. 28-36.

Peterson, J.(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21, pp. 329-337.

〈인터넷 자료〉

통계청 <http://www.kostat.go.kr/>(검색일: 2012. 5. 30.)

원고접수: 2012. 05. 02

원고수정: 2012. 06. 21

게재확정: 2012. 06. 18

〈Abstract〉

Study of Characteristics on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Sung-Sook Kim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fluence on poverty of 4 female-headed household types (FHT hereafter), which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single-person household and age (old=over 65 years old) of female heads. Using the 2007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the study reveals the following: First, the 4 FHT grouped according to the criteria were Single-Young FHT(25.7%), Single-Old FHT(23.0%), Not-Single-Young FHT(40.6%), Not-Single-Old FHT(10.6%). Seco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fluence on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human capital factors(education, health), work participation factors(having job or not), family factors(children under 19 years old, divorce/seperation), income/asset structure factors(social insurance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wning of the house). Third,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fluence on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FHT. In the Single-Young FHT, the determinant factors on poverty of FHT were education, health, job. In the Single-Old FHT, the determinant factor on poverty of FHT

was social insurance income. In the Not-Single-Young FHT, the determinant factors on poverty of FHT were health and owning of the house, in the Not-Single-Old FHT, the determinant factor on poverty of FHT was only health.

KEY WORDS: female-headed households, poverty, human capital factors, family factors, income/asset structure factors